2016년 〈해인〉지에 잠시 사진을 연재하던 중 해인사 강원의 학감 스님과 인사를 나누었다. 그 인연으로 강원을 기록하는 사진작업을 의뢰 받았다. 내겐 몹시 긴장된 제안이었다. 그리고 2017년 봄의 끝자락 6월 말, 이른 아침 절 마당에 모인 강원 스님들과 첫 상견례를 나누고 본격적으로 해인사 강원 스님들의 생활을 사진으로 담기 시작했다.

-하지권



하지권 作. 법고 2



하지권 作. 용맹정진 3



하지권 作. 소임 2

‘행복한 수행자’를 에 담다

‘절집, 세 번째 이야기-해인사 강원’

하지권 사진가 네 번째 개인전

2017.12.23.~2018.1.7.

합천 해인사 구광루

강원의 내밀한 기록 98점

학승의 치열한 일상 담아

기록과 미학 모두 성과

‘불교’ 어울리는 ‘흑백’ 세계

17년 간 불교사진을 찍어온 다큐멘터리 사진가 하지권 작자의 네 번째 개인전, ‘절집, 세 번째 이야기-해인사 강원’이 2017년 12월 23일(토)~2018년 1월 7일(일) 합천 해인사 구광루에서 열린다.

이번에 전시되는 98점의 사진은 올해 6월부터 촬영한 것으로, 일반인에게는 굳게 닫힌 해인사 강원의 내밀한 모습을 기록한 것이다. 강원은 스님들의 대학이다.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스님들만의 영역이다. 선지식의 가르침 아래 승가의 가풍과 법도를 익히고, 올바른 수행자의 길을 가기 위해 경전과 어록을 공부하는 곳이다. 강원 스님들의 치열한 수행과 수학, 그리고 일상을 담았다. 진지하게 공부하고 토론하는 모습, 울력하는 모습, 예불하는 모습, 법고를 두드리는 모습, 잠을 잊은 용맹정진 등 강원 스님들의 진지한 모습들을 보여준다.

“이들은 왜 스님이 되고 싶었을까. 물음표만 머릿속에 가득했죠. 그러던 중 강원 학감스님과 대화중에 알게 된 것이 있었죠. 이들은 행복하기 위해, 행복을 공부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행복한 수행자’를 담기로 했죠.”

이번 사진들은 사진의 출발점인 기록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모든 것이 급변하는 시대, 산문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해인사 강원 스님들의 시각화 작업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또 하나, 작가는 현장에서 발견되는 미학적 순간에도 충실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사시예불 때, 예불소리에 이끌려 법당으로 올라간 하 작가는 우연히 법당에서 창밖을 지그시 내다보고 있는 스님을 보게 된다. 같은 곳에서 같은 예불소리를 들으며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 한 사람은 사진가이고 한 사람은 출가자이다. 하 작가는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생각했다. 그리고 스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 작가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카메라에 담겼다. 그렇게 이번 사진은 기록에서 끝나지 않고 미학을 안고 있다. 눈에서 출발하지 않고 마음에서 출발한 사진들이다. 그리고 그 미학적 성과를 위해 사진은 모두 흑백이다.

“단순함, 혹은 무(無)와 공(空), 군더더기를 버려야 하는 불교의 속성이 미학적으로 순도를 높이기 위해선 흑백의 이미지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이렇듯 이번 사진은 들여다보기 힘든 곳의 단순한 기록에서 멈추지 않고 미학적으로도 깊이 고민한 사진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전과 비교해 달라진 절집의 풍경을 아쉬워하는 불자의 마음이 담긴 불자의 사진이다.

“용상방 아래서 스님들이 대나무 옷걸이에 가사장삼을 정리하는 사진이 있는데,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예전의 모습이 떠올랐죠. 그땐 스님들이 많아서 대방 곳곳에 옷걸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칸의 옷걸이가 있을 뿐이죠.”

하 작가는 아쉬움 속에서 작은 깨달음을 얻기도 했다. 울력을 위해 화려한 가사장삼을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스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작은 일상 하나하나가 모두 수행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하 작가는 “해인사 강원 촬영은 소중한 기록이자 행복한 기록이다.”고 말한다. 전시 문의/ 055-934-3000.

박재완 기자

충직, 용맹한 인간의 오랜 친구, 개

국립민속박물관 무술년 개띠 해

특별전 ‘공존과 동행, 개’ 개최

국립민속박물관은 2018년 무술년을 맞아 2017년 12월 22일(금) 부터 2018년 2월 25일(일)까지 무술년 개띠 해 특별전 ‘공존과 동행, 개’를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 II에서 진행한다.

인간의 오랜 친구, 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십이지신추(錘)’와 ‘개 모양 장식 굽다리접시’, 사도세자 作으로 전해지는 ‘견도(犬圖)’ 등 다양한 전통 유물과 함께 ‘시각장애인 안내견’, ‘인명 구조견’ 등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개와 관련된 영상 등 70여 점의 자료를 소개한다.

이와 함께 전시 첫날인 22일(금)에는 무술년 개띠 해 학술강연회를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개는 충직함과 친근함, 용맹스러움을 함께 지닌 동물로, 지구상의 어떤 동물보다 인간과 가깝게 지내는 동물 중의 하나다. 개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친근한 존재임과 동시에, 전통적으로 땅을 지키는 십이지신 중 열한 번째 신장으로 악귀를 쫓고 공간을 지키는 길상의 존재로 여겨왔다. 세화와 부적에 개가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도세자 作. ‘견도’

이번 특별전은 신성하면서도 친숙하고 용감하면서도 귀여운 개의 다양한 면모와 특징을 조명하여 개가 지닌 여러 의미를 다각적으로 보여준다.

전시 제1부 ‘인간의 수호 동물’에서는 십이지의 열한 번째 동물이면서 서북서 방향을 지키는 방위의 신이자, 오후 7시에서 9시를 담당하는 신격인 개의 상징과 의미를 알아본다.

제2부 ‘인간의 반려동물’에서는 인간의 주변에 머물며 다양한 모습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의 모습을 보여준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사단법인 대한불교선재종

수행의 문턱에서 서로 위로하고 탁마를 함께하실 도반의 인연이 없고, 어느 종단에 이 한 몸을 의지해야 할지 망설이시는 분! 또는 발심출가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 출가는 했는데 은사와의 인연이 박복하신 분! 도첩이나 호계첩이 없는 분! 여법한 각종의식 진행방법을 모르는 분! 등 승려로서 갖추어야할 덕목을 저희 종단에서 교육하고 지도하여 정법수행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으니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총무원장 성곡 지운

사단법인 대한불교선재종

● 총본산 : 무등산 미륵사 (광주광역시 동구 동산길7번길 5-11)
● 부 설 : 사찰음식전문점 수자타
● 총무원 : 광주광역시 동구 동산길7번길 5-11
전 화 062)234-9834 | 팩 스 062)223-9233
핸드폰 010-4152-4744, 010-5479-5607

